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④ 경주역사유적지구



이 중 훈  
포천시시장  
경기도문화재단 이사장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기원전 57-서기935)의 천년고도(古都)인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적이다. 유적의 성격에 따라 모두 5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다. 불교미술의 보고(寶庫)인 남산(南山)지구, 천년왕조의 궁궐터인 월성(月城)지구, 고분군 분포지역인 대릉원(大陵苑)지구, 신라불교의 정수(精髓)인 황룡사(黃龍寺)지구, 왕경(王京) 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山城)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세계유산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월성지구에는 신라왕궁이 자리하고 있던 월성, 신라 김씨왕조의 시조인 김알지(金閼智)가 태어난 계림(鷄林), 신라 통일기에 만든 임해전지(臨海戰地), 그리고 동양 최고(最古)의 천문시설인 첨성대(瞻星臺) 등이 있다. 월성은 2세기 초에 만들어진 신라의 왕궁으로 성의 모양이 반달과 같다고 하여 반월성(半月城)이라고도 한다. 현재 부분적으로 흙과 돌을 섞어 만든 성벽이 남아있고 성안에는 건물터가 있다. 최근의 발굴조사결과 성벽의

외곽에는 방어진(防辰)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임해전지는 신라왕궁의 별궁터(別宮址)로,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東宮)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에 딸린 인공연못인 안압지(雁鴨池)는 도교의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대릉원지구에는 신라의 왕, 왕비, 귀족 등 고위직배층의 무덤들이 있고, 구획에 따라 황남리(皇南里) 고분군, 노동리(路東里) 고분군, 노서리(路西里) 고분군 등으로 부르고 있다. 무덤의 발굴조사에서는 신라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관, 천마도(天馬圖), 유리잔, 각종 토기 등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성덕대왕 신종

목탑이 있었는데, 이 역시 목고의 집입 때 불타버렸다. 황룡사 앞에 위치한 분황사에는 모전(模塼)석탑이 남아있다. 본래 9층이었으나 현재는 3층만 남아있고 높이는 9.3m이다. 7세기 중엽 분황사 창건과 동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입진왜란 때 크게 훼손된 이후 1915년 일본인에 의해 수리되었으나 원형대로 복원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황룡사서탑

있어 그 이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유산이 산재해 있는 종합역사지구이다. 또한 불교유적, 산성(山城)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일본의 교토·나라의 역사유적과 비교하여 유적의 밀집도와 다양성이 더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된다. 2000년 12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유적의 밀집도와 多樣性 뛰어난 遺蹟

산성지구에는 5세기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둘레 6km의 명왕산성(明王山城)이 있다. 명왕산성은 경주의 외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였고,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했던 신라 초기의 산성 양식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성의 정확한 축성 시기는 알 수 없으나 5세기 초 왜병이 이 성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세익스피어 에세이

돈은 우리 행복의 목적인가 수단인가



박 정 구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요즈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고위관직의 재산증식의 모습을 시민의 입장에서 접하면서 한숨이 절로 난다. 국민들은 피땀 흘려 일하여 세금을 내서 국가의 운영의 밑거름이 되는데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자리를 이용해서 재산증식에 힘을 썼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FTA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많은 실업자들이 할 일없이 백수가 되어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분명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될 것이다. 그대로 청렴결백한 관리를 높이 칭송하는 이유도 권력의 자리에

산주의를 능가하고 결국 우위적 이데올로기로 입증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주의가 수단으로 하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이다. 우리가 빌 게이츠를 존경하는 것은 그의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알기 때문이다. 인류의 공통의 문제인 빈곤이나 환경파괴, 난민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기부자들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돈이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속성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기에 가능하다.

세익스피어는 『아테네의 타이몬』에서 돈의 극악한 속성과 이로 인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한탄한다. 돈은 인간의 가치를 전도하고 왜곡시켜버린다. 인간이 지금까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가치를 돈의 마술적 힘에 의해서 인간의 도덕성을 썰 수 있는 척도마저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돈에 의해서 배신과 협잡, 아첨과 굴종을 일삼는 아테네 시민들에 영감을 느끼고 숲으로 은둔한 타이몬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많은 금이면 검은 것을 희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른 것도 옳은 것으로, 천한 것도 귀한 것으로, 늙은 것도 젊은 것으로, 비겁한 것도 용감하게 만든다.”

“

신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가. 그리고 신은 돈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은 이제 신보다 더 '금'을 숭상하는 지경에 이른 인간을 어디까지 두고 볼 것인가. 다시 한 번 노아의 홍수로 인간을 정화하기 위해서 더 큰 벌을 준비하고 있던 말인가. 타이몬이 발견한 아테네 사회의 타락상은 극도에 달해있다. 그는 신에게 외친다. “아, 신들이여! 왜 이런 일을?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그래, 이것이면 그대 곁에서 그대를 섬기는 사제와 시종들도 빼앗을 것이고, 아직 기력이 왕성한 자의 머리 밑에서 베개를 빼내서 운명을 재촉할 것이다.”

”

있으면서 돈을 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 사람들의 능력의 척도가 된다. 자신의 인격이 학문이나 도덕성에 있다고 믿고 돈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졌던 무능력자로 몰아서 소외를 당하기 일쑤다. 사람의 속성이란 남 앞에서 뽐내고 싶고, 남이 누리는 행복을 질투하고 자신도 세속의 행복의 대열에 합류하고 싶은 것이 인성상정이라. 남이 들고 있는 명품이 아니라 소유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가짜 명품이라도 가졌다고 보이고 싶어한다. 이런 현상이 바로 자본주의의 속물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가 인류의 행복증진에 있어서 공

교육에세이 36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교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백년의 큰 계획(百年之大計)'이라고 합니다. '백년의 큰 계획'이라는 말속에는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먼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한 나라의 장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을 올바르게 길러내는 일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대한 사업으로 '성숙한 지도자가 미성숙한 개개인을 성숙한 인격으로 이끌어주는 행위 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기본이 바로 선 학생상 정립』을 위한 실천사항으로 'KOCE'의 생활화, 즉 '머무르고 싶은 학교, 친절(Kindness), 질서(Order), 청결(Cleanliness), 예절(Etiquette)'의 생활화 교육, 그리고 '3행' 운동(· 학생은 상호간에 배려하기, 교사는 학생을 칭찬하기, 학부모는 자녀와 대화하기)의 효과적 지도를 통해 상호간에 공감적 이해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 형성,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한 학생 생활 지도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나아가 폭력 없는 학교문화 정착으로, '사랑, 믿음, 즐거움'이 있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어 학생이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포천교육청에서도 「머무르고 싶은 학교, 교육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희망으로 가득 찬 신바람 나는 교육공동체 조성을 주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란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싶은 학교,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교실은 학생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적, 도덕적, 신체적, 정서적 능력과 소양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발달되는 많은 문제들과 주어진 새로운 역할을 보다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적응하여 '보람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3행 운동, 즉 학생은 상호간에 배려하기, 교사는 학생을 칭찬하기, 학부모는 자녀와 대화하기 운동을 지

속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협동, 봉사, 질서인식을 고취함으로써 즐거운 학교, 신뢰받는 교육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야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낙동(樂動)·늘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자)이라는 말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 사고(思考)와 능동적 참여 정신으로 생활하게 되면 추진하는 업무(학업)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나아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 같은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인데, 교수·학습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즐겁게 생각하는 교사가 경영하는 교실과 가르치는 일을 오로지 생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교사가 경영하는 교실은 크게 다를 것입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흔히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데,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사람'을 목표로 한다는 평범한 사실에서 그 해답을 구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지도하고 육성해 가는 것이기에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른을 공



지 정 주  
포천지역교육과정

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질서를 생활화함으로써 학생들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교실이라는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짧지 않은 시간동안을 매일 같이 즐겁게 생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즐거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 스스로에게 부과되어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학풍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행복을 마음으로 즐겁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학생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칭찬과 격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교실을 만드는 것이 바야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에듀토피아(Edu-topia)라 할 것입니다.

**꽃배달 서비스**

☛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281-14  
부인타사거리에서  
송우리쪽  
130m  
우측대로변  
풍산그라비아옆  
☛ http://www.sunghaflower.co.kr

www.wellbeingcha.com  
031-543-1883

www.wellbeingcha.com

031-543-1883  
011-9750-1883

☛ http://www.wellbeingcha.com

☛ **운남보이차** 상품  
천연무공해식품  
무량탄다예종  
원산지 상품 도소매  
“자향타회” 회원우대  
인증무공해식품  
다도시연회  
☛ http://www.wellbeingcha.com

**운남보이차**

011-9750-1883